

# 저성장(3.9%)

韓銀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

고유가 발목 ... 수출 호조·내수 부진 양극화

韓銀 물가 안정 주력 당분간 금리동결 기조

우리 경제가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고물가 저성장의 '스테그플레이션'으로 다가서고 있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은 우리 경제가 향후 '저성장, 고물가'로 추락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고유가에 성장·물가 발목 = 한은이 전망을 수정한 이유는 고유가와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등 국내외 여건이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성장률이 상반기 4.9%에서 하반기 4.4%가 될 것이라는 당초 전망의 전제가 되는 주요 지표들이 예상에서 속속 벗어나

갔기 때문이다.

한은은 국제유가의 경우 하반기에도 수급 사정이 쉽게 개선되기 어렵고 원유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높은 수준을 지속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까지 가세하면서 소비자물가는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인 3.5%를 훌쩍 뛰어넘어 5%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 호조·내수 부진 양극화 지속 = 하반기에도 수출이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가운데 내수는 침체하는 양극화 현

# 한국 경제 위험 예고

# 고물가(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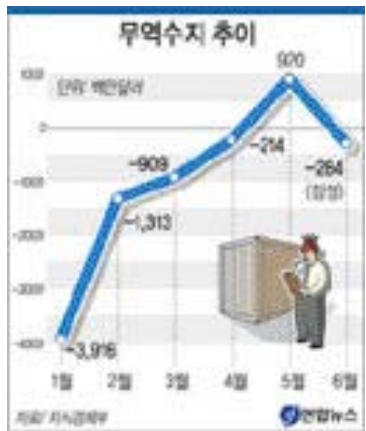


월별 소비자물가 추이

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은은 수출증가율이 상반기 11.6%에서 8.2%로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수출호조는 브릭스나 산유국 등 신흥시장국의 고성장이나 선진국 경기 둔화를 어느 정도 상쇄해줄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반면 내수를 보면 민간소비의 경우 고유가로 실질구매력이 저하되면서 소비



무역수지 추이

심리가 위축되고 가계채무부담이 늘면서 하반기에도 2.7%의 낮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설비투자 증가는 상반기 1.7%에서 하반기 7.3%로 높아지겠지만 이는 작년 하반기에 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실제로는 기업 채산성 악화와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

◇저성장 고착화하나 =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4.5~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연 4.6%의 성장률은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경제 전망에 있어 가장 보수적인 편인 한은의 전망은 KDI(4.8%), 현대경제연구원(4.9%), 삼성경제연구소(4.7%), LG경제연구소(4.6%) 등 다른 국책 또는 민간 연구소들보다는 다소 낮거나 비슷하지만 OECD(4.3%), IMF(4.1%)의 예측치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성장을 둔화 속도다. 상반기 5%대 성장에서 3%대로 급락하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충격은 더욱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화정책 변화 있을까 = '물가 안정'을 정책의 주된 목표로 잡고 있는 한은이 선제적 금리 인상에 나설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은이 고물가와 함께 저성장 우려를 동시에 내놓은 점에 주목하면서 당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 펀드 투자 남<여 평균 잔고 남>여

하나금융그룹,고객별 동향 조사

펀드 고객은 여성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펀드 계좌의 평균 잔고는 여성 고객보다는 남성 고객이, 은행 고객보다는 증권사 고객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나금융그룹 산하 하나은행과 하나대투증권이 펀드 고객들의 동향을 조사한 결과 5월 말 현재 이들 금융사 여성 펀드고객의 비율은 계좌 수를 기준으로 62.57%인데 비해 남성은 37.43%에 그쳤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하나은행 여성고객 계좌의 비율은 전체의 64.05%를 차지한데 비해 남성은 35.95%에 그쳤고, 하나대투증권은 여성 고객의 계좌 비율이 57.69%인데 비해 남성은 42.31%였다.

이런 현상은 가족 구성원 가운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펀드 계좌에 더 적극적이라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은행 여성고객의 비중이 증권사에 비해 더 높은 것은 통상적으로 은행을 방문하는 전체 고객 중 여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펀드 한 계좌당 평균잔고는 남성의 경우 946만4천원인데 비해 여성은 666만8천원으로 남성 계좌의 잔고가 훨씬 많았다.

또 하나은행의 계좌당 평균 펀드 잔고는 621만4천 원인데 비해 하나대투증권은 1천267만3천원으로 증권사 고객들의 펀드잔고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증권사에 여성보다 거액을 투자하는 남성고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 농협, 금융지주사 추진

경제·축산 부문 통합 등 경영혁신안 이달중 확정

조합원 240만명의 거대 조직 농협이 합리적 지배구조를 갖추고 농업인 이익을 책임지는 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 개혁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경제·축산 부문 통합이나 신용부문 금융지주사 전환, 지역조합 통합·폐합 유도 등이 최종 논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농협 관계자들에 따르면 농민·소비자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조합장 등 18명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는 앞으로 두 차례 정도 회의를 더 열고 이달 중 농협개혁·경영혁신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 개혁안의 핵심은 지배구조 개선이다. 지난 2005년 농협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각 사업대표 후보 추천권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조직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 감사위원 가운데 절반을 '회장측 사람'으로 채울 수 있는 현행 감사시스템의 문제 개선 등이 이번 개혁에 이뤄질지 주목된다.

통합펀지 8년이 지난 축협과의 화학적 결합과 사업의 시너지 차원에서 경제·축산 부문을 통합하고 한 명의 대표를 두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80년대 이후 대통령 재임기간중 잘한 일

# '경제성장' 전두환 '물가관리' 노무현

1980년대 이후 등장한 대통령 중 전두환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측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물가 관리에서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집권기간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시기는 전두환 대통령 때였다. 1981년부터 1987년까지 7년간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8.70%로 노태우(8.36%), 김영삼(7.10%), 김대중(4.38%), 노무현(4.42%) 대통령 재임기간에 비해 높았다. 전두환 대통령 집권 당시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은 3.04%로 격차가 5.66%포인트에 달했다.

한국 경제성장률과 세계성장률 간 격차는 노태우 대통령 때(1988~1992년) 5.43%포인트, 김영삼 정부(1993~1997년) 3.81%포인트, 김대중 정부(1998~2002년) 때 1.23%포인트로 줄어들다가 노무현 정부(2003~2007년) 들어 -0.17%포인트로 역전됐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의 성장률은 세계 평균(4.59%)에 못미쳤다. 비교대상인 5명의 대통령중 세계 평균 성장률에 비해 낮은 성장률은 낸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가 유일하다.

물가관리 부문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가 가장 양호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에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2.92%로 전두환(6.09%)·노태우(7.38%)·김영삼(4.98%)·김대중(3.50%) 대통령 때에 비해 낮았다. /연합뉴스

# 소비자 10명 중 8명 "외식비 많이 줄었다"

주부 등 500명 물가고 따른 소비행태 조사

물가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10명 중 8명 이상이 가게 씬음을 줄이고, 여러 분야별 지출 가운데 외식비를 가장 많이 절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발간하는 유통 전문지 '리테일매거진'이 최근 대형마트 고객과 주부 소비자 모니터링 등 503명을 대상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5.5%인 430명이 가게지출을 줄였다고 말했다고 1일 밝혔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00만원 이하인 가정은 88.3%,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71.0%가 각각 줄었다고 답해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지출감소 경향은 뚜렷했다.

가장 많이 줄인 분야로는 전체 응답자의 44.4%가 외식비를 꼽았다.

이어 식료품비(18.4%)와 화장품 및 의류비(12.3%), 여가 활동비(12.1%)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자녀 교육비를 선택한 응답자는 1.6%에 불과했고, 통신비도 2.3%로 낮은 수준이었다.

유통 외에 품목별로 가격인상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는 가장 많은 59.2%가 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을 꼽았고, 이외에 17.9%가 생선·정육을, 15.5%가 과일·채소를 각각 지목했다.

앞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기를 희망하는 품목은 과일과 채소(31.6%), 라면·과자 등 가공식품(23.1%), 세제·화장지 등 생활용품(15.7%), 생선·정육(15.3%), 쌀(10.7%) 등이었다.

반면 구매 빈도가 낮은 의류(3.0%)나 가전·가구(0.6%) 등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연합뉴스



KT 네스팟 플레이 서비스

KT는 니콘이미징코리아와 협력해 무선랜(WiFi)이 내장된 니콘의 디지털카메라에서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네스팟 플레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니콘의 무선랜 카메라를 구매한 고객은 월정액 3천원으로 네스팟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든지 사진을 찍어 바로 지정된 인터넷 사이트(www.mypicturetown.com)에 저장할 수 있다. /연합뉴스

수입차·밀가루·휘발유·세제 가격 선진국보다 최고 2배 비싸

# 국내 소비자는 '뽕'?

소비자원, 11개 주요 생필품 국내 판매가 비교

수입차 가격을 구매력을 감안해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판매 가격이 배 이상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차이는 과도한 유통 마진, 국가별 세금 차이, 업체의 과점구조, 유통단계의 경쟁 제한적 제도와 행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은 1일 주요 생필품 등 11개 품목에 대해 G7과 아시아 주요 국가의 판매가격을 구매력지수(PPP)를 적용해 비교한 결과 수입차와 휘발유, 경유, 밀가루, 세제, 수입타이어의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평균환율(5월13일~6월9일 외환매매율 기준)과 구매력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OECD의 2월11일 발표수치)를 활용해 실시했다. 구매력지수는 국가간의 물가수준을 고려해 각국 통화 구매력을 동일하게 해주는 통화비율로, 이번 조사에서 평균환율은 1천37.32원 구매력지수 환율은 749원이 각각 적용됐다.

조사대상 지역은 G7국가의 주요도시인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 도쿄, 밀라노, 토론토와 아시아 경쟁국 주요 도시인 타이베이, 싱가포르, 베이징, 홍콩이다. 조사 품목은 밀가루, 식용유, 설탕, 세제, 수입차, 골프채, 종합비타민, 휘발유, 경유, 등유, LPG 등 실생활과 밀접하거나 독과점 구조이고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이 선정됐다. /연합뉴스



# 가스업계, 7월 LPG값 인상 보류

가스업계가 극심한 눈치 보기로 액화석유가스(LPG)의 가격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관례상 매달 1일 적용되던 가스업계의 LPG 가격인상 결정시스템도 처음으로 깨졌다.

지난달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LPG 공급량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SK가스와 E1은 이날 자정 무렵까지 계속된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인 LPG 가격인상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

E1 관계자는 "국제가격 상승으로 LPG 가스가격의 경우 kg당 70~80원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날 하루종일 회의를 열었는데도 가격을 올

릴지 동결할지, 또 올리면 얼마나 올릴 것인지 등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LPG 공급가격의 기준이 되는 국제가격인 사우디 아랍코사의 6월 LPG 기간계약가격(CP)은 t당 부탄 가스는 920달러, 프로판가스는 895달러로 결정되는 등 지난 5월에 견줘 t당 부탄 가스는 60달러, 프로판가스는 50달러가 올라 국내 공급가 인상요인은 충분하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이들 업체는 7월 1일 중으로 다시 회의를 열어 가격을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 인상한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를 올릴 것인지 확정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깊이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 백화점 종이 쇼핑백 '공짜'

백화점들이 돈을 받고 구매 고객들에게 제공해온 종이 쇼핑백을 무상으로 주기 시작했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1일 "그동안에는 한장당 100원씩 받고 종이 쇼핑백을 제공해왔으나 환경부의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법과 이 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종이 쇼

핑백이 무상제공 금지 대상으로 제외됐다"며 무상 제공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신세계백화점, 에경백화점 등은 전날부터,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등은 이날부터 무상 제공에 들어갔다고 업계는 전했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광주PC랜드	컴퓨터 설치 및 A/S기사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7/04	062-223-5429
한진기공	[기계설계/NC밀링기사/관리직]정규직	고졸/경력년	2200~2400	07/04	062-953-1642
영경하이테크	품질팀 문서 사무보조 여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7/04	062-956-8453
롯데우유	롯데우유 광주지점 영업사원	초대졸/경력무관	2400~2600	07/04	062-571-7003
히미시네마	회계사무 (더전 사용, 결산가능자)	초대졸/경력1년	1400~1600	07/04	062-261-5398
메트라이프생명	2008년 하반기 사원(영업/비서직)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4	062-228-1137
광산영어학원	광주 광산구학습관 영어교사	대졸/경력1년	1600~1800	07/05	062-955-2960
신우신원	건축기계설비,환경,공조/공무/경력 경력직	대졸/경력2년	2800~3000	07/06	062-972-1865
동부회계 광주 고객서비스팀	동부회계 직영 TC텔레마케터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6	062-220-8500
중우건설	경리,회계,총무(여)직원	고졸/경력2년	1600~1800	07/07	062-226-6247
동서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개발 대졸 신입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8	062-682-7894
한길정보통신	SHOW (KTF) 대리직 근무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8	062-375-3663
GM대우자동차(남부영업소)	2008년 신입 및 경력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0	062-653-5828

(광주지프코리아 512-6210 제공)